

# 순천시, 전남 첫 아픈 아이 병원 돌봄서비스 지원

## 7월부터 전문 돌보기 과전 식사·복약 지원 1대1 돌봄

맞벌이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파 입원을 해야할 경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전문 돌봄미를 과전,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7월부터 갑작스

런 아이의 입원으로 발생하는 병원 내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아이 돌봄을 확대하여 영양보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적 돌봄 교육을 수료한 아이 돌보미가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아동의 식사·복약지원, 놀이 및 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1:1 돌봄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가

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 아동으로 가구소득 유형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시간당 2000 ~ 1만 1000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미즈여성아동병원 △플러스아이미코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연 100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사)순천YWCA (061-744-5852)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이의 돌봄은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만족할만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비 지원 영광군, 관의 종합병원 이송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앰블런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비용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시 기본요금 7만5000원, 1km당 1300원씩 가산 비용과 야간의 경우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해 군민 부담이 가중됐었다.

신청방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 한다리교 6월 풀매기 활동 무안읍 새마을부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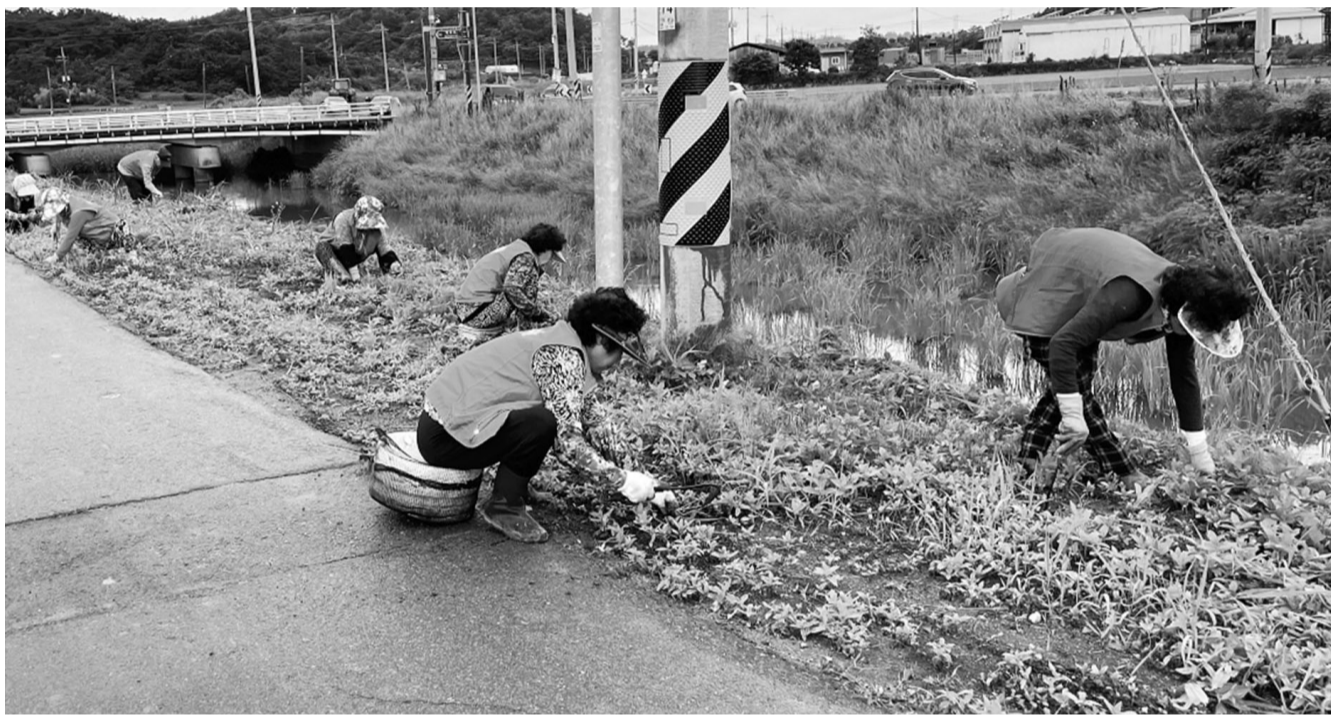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양복순)가 무안읍 고절리 한다리교에서 행복홀씨 사업의 하나로 6월 풀매기 활동에 나섰다.

29일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이번 풀매기는 5월에 심었던 백일홍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으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무안천 주변 꽃길에 깨끗하게 정리됐다.

양복순 새마을부녀회장은 "백일홍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화단이 깨끗해져 뿌듯하다"며 "무안천 꽃길 조성에 무안읍새마을부녀회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아 무안읍장은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수고해주신 새마을부녀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며 "심은 꽃들이 무럭무럭 자라 백일홍이 만개한 아름다운 무안천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가 무안읍 고절리 한다리교에서 행복홀씨 사업의 하나로 풀매기 활동에 나섰다.

무안군 제공

## 방장산 숲속요리교실 참여 장성군산림조합



장성군산림조합(조합장 설재경)은 지난 24일 장성 방장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청이 주최한 '2023년 제4회 포레스트로망' 행사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성 관내 임가에서 생산한 편백나무 제품과 대봉말랭이, 고사리 등 임산물 판매를 대행했다.

산림경영지도원이 장성군산림조합에서 자체 제작한 '사유림경영지도' 리플렛과 책자를 배부했고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스마트영림일지 '입업e지' 설치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 영림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림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강종만 영광군수 "예산 1조원 시대 열어가겠다"

##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강종만 영광군수가 29일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 반드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강 군수는 이날 청사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영광 대전환'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역점 추진할 군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년에 대해 강 군수는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부름을 받들어 더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 도전과 희망의 여정이었다"며 "군민이 주인인 영광, 주민 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더 활기찬 미래 영광 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1조원 시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종만 영광군수

주요 성과로 '군민 1인당 100만원 재난 극복 행복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활력지원금·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인상',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국고 예산 확보분야' 예산 국비 55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18억원과 특별교부세 77억4000만원을 확보해 열악한 군 재정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시급한 현안사업인 '참조기양식산업화 센터 건립(160억원)',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300억원)', '월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50억원)' 예산 확보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1등으로 선정됐으며 영광군 개청 이래 단일사업으로 300억원 규모 국비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강 군수는 지난 1년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민선 8기는 6대 역점 시책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해 군정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강 군수는 6대 역점 시책으로 '풍요로운 농산어촌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은 세대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 스포츠산업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군민이 주인 되는 섬김 행정 실천'을 제시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전남 쉬다가게 SNS인증 이벤트 전남도·전남관광재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순천만 정원박람회 등 매가 이벤트 개최에 맞춰 오는 7월16일까지 '전남 쉬다가게' 민간관광안내소 방문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가 24시간 관광지 친절환 관광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광지 내 숙박시설, 카페 등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지정한 민간관광안내소 '전남 쉬다가게'를 알리고 체류형 전남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ijnto.or.kr)에서 민간관광안내소를 확인·방문후 재단 SNS(인스타그램 @jeollajoa) 방문 후 팔로우하고,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전남쉬다가게 #민간관광안내소 #전남관광재단 #관광지명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는 7월16일까지이며 7월24일 경품 당첨자는 전남관광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한다.

이벤트 당첨 상품은 여수 라마다프라자호텔 숙박권, 보성녹차떡갈비원조 식사권 등 도내 민간관광안내소를 한번 더 즐길 수 있는 남도의 맛과 맛을 담은 경품으로 총 56명에게 제공된다.

민간관광안내소 '전남 쉬다가게'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시간과 접근성편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남도가 추진한 소비자 맞춤형 정책 개선 사업으로 관광지 인근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도민이 직접도 관광안내자가 되는 제도다.

'전남 쉬다가게'는 2022년 58곳을 선정한 이후 6곳을 추가, 22개 시군 총 64곳에서 운영중이다.

박간재 기자

# 보성군 "고향사랑기부하면 관광지 숙박할인권 제공"

보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내 휴양림 숙박할인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29일 보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할인권·전남권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센터 숙박 할인권·대원사 템플스테이·다향울림촌 체험관·울포해수욕장센터 이용권·천연염색 공예관 숙박 및 체험관 등 관광서비스형 답례품을 제공한다.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센터는 웅치면 제암산에 위치한 숙박 시설이다 무장에 데크길과 시원



한 계곡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대원사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나를 찾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천봉산의 자연에서 티벳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로종'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다. 다향울림촌에서 진행되는 '녹차 족욕+밀랍 만들기'도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차를 마시며 득량만 권역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다. 각종 체험뿐 아니라 행사 시설대여도 할 수 있다.

기부액수에 따라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예약사항이나 추가금액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성군은 숙박이나 체험 외에도 보성사랑상품권, 이동 빨래방, 지역 농·수·축·특산물 등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박간재 기자